

e 뉴스레터 최종호를 발행하며...

체육단체 통합 e 뉴스레터는 2015년 5월 28일 발간되어 약 10개월 간 체육인, 국민 여러분과 체육단체 통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심층적 의견을 나누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비록 e 뉴스레터는 제23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지만, 뉴스레터의 슬로건(To the world, Be the best, As one)과 같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되어 시너지를 발휘하고,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체육단체 통합 e 뉴스레터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나면 한갓 헛된 욕심뿐인걸...”

지난 10개월 동안 통합체육회 골격이 하나씩 세워지는 과정을 돌아켜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안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화를 냈는지...” 내 스스로 미숙함에 고개를 들기가 민망해진다. 어차피 가는 길이,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데, 마치 나 혼자서 굳이 그 길을 마다하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듯한 착각에 빠져 밤잠을 설친 날은 얼마나 되었는지.



자포자기에 빠져 아예 모르는 채 외면을 하거나, 마치 통합이 기상천외한 신약(神藥)이라도 되듯 옹호하는 양 극단의 체육인들을 보면서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아직도 아리송하기만하다. 다만 오늘의 통합에 대해 먼 훗날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때 내 자신을 포함해 그 반대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만을 바랄뿐이다. 그래도 통합체육회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것만은 어쩔수 없는 듯하다.

통합 e뉴스레터 편집위원장 **장태화**(한국체육언론인회사무총장)

“통합이라는 숙제, 체육인들이 현명하게 마무리하길 바라며”



2015년 연초부터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명제 앞에 우왕좌왕할 때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통합 e뉴스레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도 완전체가 아닌 통합체육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현명한 체육인들이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시도, 경기단체가 먼저 통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앙의 소식을 꼼꼼히 전달 할 수 있었던 것은 e뉴스레터 편집담당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메일을 통해서 전달되는 e뉴스레터를 읽어 주시던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섭섭함은 있지만 통합이라는 명제를 풀고 소임을 다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흐뭇합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통합 e뉴스레터 편집위원 **이종현**(인천광역시체육회 경영기획부장)

“체육단체 통합,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어느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도체육회 역시 시도생활체육회와 한 지붕 아래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체육단체 통합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체육의 근간인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의 경우 통합의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명확한 통합 방법이 공유되지 않아 아직도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단체 통합은 완료되었을지라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추후 남아있는 시도종목단체 통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역시 단순한 양 단체 합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단체로서 대한민국 체육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장 **배희욱**

[Special thanks to]

약 10개월 간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한 귀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표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체육단체 통합 e뉴스레터를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합 e뉴스레터 편집위원 **일동**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